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날선 신경전

중소기업계 “내수부진 등으로 시기상조” vs 노동계 “생계유지 위해 인상 필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세워 근로자들의 소득향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매년 15.7%씩 인상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에서 8% 정도였던 최저임금 인상폭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폭 예상 수치가 약 2배 가까이 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간 합의 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와 당장 2018년도 최저임금부터 1만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

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안긴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 성장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 못하는 기업이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한계 직전 상태까지 몰입한 가운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납품단가 노무비연동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년 간 매년 7·8%씩 최저임금 인상이 진행됐으나 이들 인상폭이 납품단가에 반영된 중소기업체는 절반 수준(57.1%)에 불과해 하도급 업체에 노무비 부담이 전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방안의 필요성에도 힘을 실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소득 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영세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7%에서 6%로 인하,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 주휴수당 지급액 50% 지원 등 세제·자금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노동계 측은 생계유지에 턱없

이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최저임금 수준은 가구생계비는 컸던 비혼 단신 생계비의 7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이고 2·3인 가구생계비를 고려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에서 40% 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노동 관계자는 “경제성장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노동소득분배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을 더한 평균치는 5.88%인데 비해, 노동자 명목임금상승률은 3.13%에서 3.75%에 그쳐 양 수치가 격차는 2.12%에서 2.73%에 달해 ‘임금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재홍 기자

이스타항공, 고객 감사 특가 이벤트

17일까지... 최저가 9900원부터 이용 가능

이스타항공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12일 오후 2시부터 17일까지 고객 감사 대전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주년 기념 감사 대전 이벤트는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국내선 항공권과 9월 1일부터 9월 27일 까지의 국제선 항공권이 대상이며,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과 앱에서 예매 가능하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이스타항공의 22개 노선에 대해 10년 전 가격을 재현한 추억의 99운임 특별 가격으로 항공권을 제공한다. 국내선 5개 노선은 편도총액기준 최저가 9,900원부터 이용가능하며, 국제선의 경우 노선에 따라 편도총

액기준 최저가 3만9,900원부터 9만 9,000원까지 제공된다. 더불어 이스타항공은 이벤트 기간 동안 예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 페이지에 예약번호와 축하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국내선 왕복항공권, 호텔숙박권, 렌터카이용권, 로고상품, 커피교환권 등 푸짐한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대한민국 저비용항공사 국민항공사로써 10주년을 맞이하게 돼 이를 보답하고자 이번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가올 10년도 고객여러분과 함께하는 국민항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영지버섯, 다이어트 관련 연구결과 발표 ‘이목’

농진청, 항비만 효과 밝혀... 다양한 식·의약품 소재 활용

각종 성인병의 대표적 원인인 비만, 그 수가 늘면서 체중조절에 관심이 많다.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관련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동물실험으로 영지버섯의 항비만 효과를 밝혀냈다. 영지버섯은 예로부터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실장생 중에서 불로초로 불릴 정도로 약효가 뛰어나다고 전해지고 있다. 동물실험은 정상식이군, 고지방식이군(이하 대조군), 영지버섯 추출물(1, 3, 5%)이 함유된 고지방식이군으로 나눠 12주 동안 진행했다.

실험 결과, 대조군에 비해 5% 영지버섯 추출물 식이군에서 28% 체중감소 효과를 보였다. 지방조직의 무게는 대조군에 비해 52%, 간조직의 무게는 16% 감소했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5% 영지버섯 추출물 식이군이 대조군에 비해 21%, LDL-콜레스테롤은 24% 줄어들었다. 간의 중성지방 함량 측정 결과, 대조군에 비해 5% 영지버섯 추출물 식이군에선 지방 축적이 41% 감소했다. 5% 영지버섯 추출물 식이군은 대조군에 비해 간 기능의 지표인 혈청 AST, ALT 활성 값도 각각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및 간 조직을 염색해 관찰한

결과 대조군은 정상식이군에 비해 지방 크기가 많이 크며 간 조직에서 지방 축적이 높게 나타났다. 5% 영지버섯 추출물 식이군에서는 지방의 크기가 작아졌으며, 간 조직의 지방 축적 현상이 감소했다. 지방 및 간 조직에서 비만 관련 유전자 발현을 분석한 결과, 5% 영지버섯 추출물 식이군에서 지방을 형성하는 유전자들의 생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고지방식과 함께 먹인 영지버섯 추출물은 체중 감소, 혈액 및 간 지방 개선, 비만 관련 유전자 변화 조절 등의 효과를 보여 비만 개선과 비만에 의한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기술을 특허출원했으며 업체로 기술 이전을 완료했다. /인재홍 기자

업체에서는 영지버섯 추출물이 함유된 기능성 제품을 만들어 시제품을 출시했다. 이번 영지버섯의 항비만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함에 따라 앞으로 영지버섯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추가 연구로 비만치료제 등의약품 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식·의약품이 개발되고 보급이 활성화된다면 영지버섯 수요 증가로 이어져 버섯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이지원 인삼특작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식·의약품 자원을 발굴하고 건강기능성 인종과 소재와 연구로 농가 소득 증대와 버섯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홍 기자



전북중기청-군산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체결

심화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북중기청과 군산지역 유관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전북중기청청은 12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군산대학교, 군산고용노동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군산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이 청년인턴제, 현장실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300만원, 기업 부담금 300만원, 정부지원금 600만원을 합한 1,200만원+이자를 만기에 수령하는 청년취업 전용 공제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군산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해 군산대 졸업예정자가 중

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전 추가로 현장실습 지원금을 월40만원 이내로 3개월 이상 보조해주는 것이다. 이는 기업에서는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우수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효과가 있어 지역 인재의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전북중기청청은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으며, 중소기업 고용창출 수요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원탁 전북중기청장은 “우수한 청년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 해나갈 것”이라며, “군산대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독려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해 청년 취업난 해소에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홍 기자

한국은행 전북-전북연구원, 산학교류세미나 실시

한국은행 전북본부 12일 전북연구원과 산학교류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북의 현 산업구조를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미래 전략을 모색코자 ‘전북 산업구조변화 추이 및 향후 육성전략 수립 방향(제1주제)’과 ‘4차 산업혁명과 전북의 대응방안(제2주제)’을 주제로 진행했다.

한국은행 박의성 과장은 주력산업의 부진에 대응한 새로운 육성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전북연구원 이지훈 부연구위원은 전북의 첨단농생명 클러스터 조성,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스마트 관광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인재홍 기자

전북우정청, 임실초 찾아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

전북우정청은 12일 ‘전북 은고를 100만 편지쓰기’ 운동에 6월 우수 참여학교로 선정된 임실초등학교를 찾아 6학년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과 편지쓰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체국과 학교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상상력과 창

의력을 일깨워주기 위해 실시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인 3D프린터를 통해 호투라기와 소형 무지개우체통을 직접 출력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전북우정청에서는 편지쓰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 학교를 대상으로 창의·인성교육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재홍 기자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로 킴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미나리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장미



호박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재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상경,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연합동조합